

# “푸틴, 실각 때 남미로 도피...작전명 ‘노아의 방주’ 마련”

### 이례적 두문불출...연말 법정 연례행사마저 취소 “뭔가 수상하다” 건강이상설 등 갖가지 소문 난무

블라디미르 푸틴(70) 러시아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사라졌다. 최근 공식행사 참석이 드물어진 것은 물론이고 과거 당연히 참석하던 연례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취소를 검토 중이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이 자연스러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가 치욕적인 전쟁 패배와 실각 가능성에 대비해 남미행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공식행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행사였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삼페인잔을 뜯 채 술기운을 띤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도네츠크주를 크림반도와 혼동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대통령 부재설을 일축하려는 듯 16일 푸틴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내각 회의를 주재했다며 동영상 공개했지만, 더타임스는 대통령 부재설을 위해 미리 찍어둔 동영상상 가

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의 두문불출은 더 길어질 공산이 크다. 연말에 으레 열리던 연례 기자회견과 ‘국민과의 대화’ 행사는 이미 취소됐다. 헌법에 규정된 의회 시정연설도 취소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한 대통령’ 이미지에 크게 기여하던 연말 아이스하키 행사도 취소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부터 거의 해마다 붉은광장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하키 경기에 직접 출전했지만 올해는 출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행사 취소는 기자단, 국민들에게서 전쟁 진행과 관련해 난감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행사 관련지역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러시아의 진정부 성향 언론은 단순한 전쟁 수행으로 일정이 워낙 바빠지기 때문이라고 신변이상설을 애써 억누르고 있다.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예카테리나 슐만은 더타임스에 “전부 뭔가 의심스럽



자주포 쏘는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최정예 전투여단으로 불리던 ‘제200독립기갑화보병여단’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뒤 사실상 와해됐다고 보도된 가운데 동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자주포를 발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 이런 행사는 (정권의) 안정성 유지 면에서 필요하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1년의 마지막 날이면 진행하던 TV연설까지 취소하는 경우 푸틴

대통령의 신변 이상설이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고 더타임스는 짚었다.

대통령이 자취를 감추자 곧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비서관 출신인 아

바스 갈리아모프 정치평론가는 크렘린궁 측 소식통을 인용,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대패하는 경우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로 탈출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주장했다. 탈출계획의

작전명은 ‘노아의 방주’라고 한다.

갈리아모프 평론가는 푸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최고경영자(CEO)인 이고르 세친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 이같은 탈출 계획을 꾸밀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거주자인 갈리아모프 평론가가 이런 극비사항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만에 하나 이런 계획이 사실이라 해도 정보가 누설된 이상 정보원이 위협받거나, 정보를 수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이어진다.

서방 세계의 회망사항이 반영된 듯한 푸틴 대통령 ‘건강이상설’도 계속 이어오른다.

러시아의 반정부단체 ‘더프로젝트’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4년간 암 전문의의 진료를 35차례나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의료진 가운데는 감상선암 전문 의과 의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조금만 불편한 표정이나 몸짓을 보이면 타블로이드지를 중심으로 건강이상설이 확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신빙성 있는 근거를 인용한 경우는 드물었다. /연합뉴스

## 인도 ‘밀주 참사’ 사망자 82명...25명 시력 잃어

### “비하르주 금주 정책 후 가짜 술로 1천 명 넘게 사망”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밀주(密酒) 참사’ 관련 사망자 수가 80명을 넘어섰다.

18일(현지시간) 인도 국영 방송 올인디아라디오(AIR)에 따르면 북부 비하르주 사란 지역 등지에서 밀주를 마신 후 숨진 피해자가 82명까지 늘어났으며 25명이 시력을 잃었다.

당초 사망자 수는 6명 수준으로 알려졌다으나 치료를 받다가 숨진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금도 12명이 중태에 빠진 상태이며 3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비하르주 정부는 밀주에 유독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 조사팀을 구성했다. 또 지금까지 213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인도의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비하르주 정부에 정확한 사건 내용을 보고해 달라며 이번 사건이 비하르주의 주류 판매·소비 금지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비하르주는 2016년 4월부터 술 판매·소비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은 주민들은 밀주를 사먹다 검중되지 않은 가짜 술을 마시면서 이번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실 쿠마르 모디 인도 상원의원은 비하르에서 금주 정책 시행 이후 가짜 술 때문에 1천 명이 넘는 사람



지난 14일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서 가짜 술을 마시고 사망한 희생자의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빈곤층 사이에서 공업용 메탄올 등 유독 물질이 포함된 밀주를 마시다가 집단 사망하는 일일 종종 발생

한다. 2011년 서벵골주에서는 172명이 밀주를 마시고 사망했고, 2019년 동북부 아삼주에서 주민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 태국 국왕 부부, 코로나19 확진

태국 마하 와제랄롱꼰(라마 10세) 국왕과 수티다 왕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태국 왕실이 지난 17일 밝혔다.

국왕 부부는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증상은 미미하다고 왕실은 전했다.

의료진은 국왕 부부에게 약을 처방하고 외부 행사 참석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국왕 부부는 전날 팟차라끼띠야파 나렌티라텃파야와디 공주가 입원 중인 방콕 출라롱꼰기념병원을 방문했다.

와제랄롱꼰 국왕의 첫째 딸인 팟차라끼띠야파 공주는 지난 14일 심장 이상으

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에는 왕족 외에도 브라우 짬오차 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국민 등 공주의 쾌유를 비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스웨덴, 동물원 탈출 침팬지 사살...비판 쏟아져

스웨덴의 한 동물원이 우리를 탈출한 침팬지를 사살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BBC방송 등 의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165km 떨어진 예블레 지역 근처의 푸루비크 동물원에서는 14일 침팬지 7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동물원 측은 침팬지를 향해 사격을 가했고 7마리 중 3마리가 현장에서 죽었다. 다른 1마리는 다쳤고 나머지 3마리는 아직 포획되지 않아 동물원 측이

수색 작업에 나선 상태다.

동물원이 개장하지 않은 날 사건이 발생한 덕에 방문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나 직원에게는 실내에 머물거나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푸루비크 동물원의 대응을 두고 스웨덴 사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마취총 등을 사용해 제압, 생포하는 대신 즉시 총으로 죽였다는 점이 문제 제기가 된 것이다. /연합뉴스

## 대만, 한파로 이틀 동안 99명 사망

아열대 지역인 대만에 올해 첫 한파가 엄습하면서 이틀 동안 99명이 한랭질환인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을 엄습한 이번 한파로 북부 타이베이에서 20명, 타오위안 13명, 남부 가오슝 13명 등 여러 지역에서 비정상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대만 소방국과 위생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양일간 대만 전 지역에서 병원 밖 심정지(OHCA) 환자가 121건이 발생했다.

연합보는 16일 저녁부터 하루 동안 내과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등 최소한 6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급증이 한파로 인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나 한랭기단 위력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광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왕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